

# 다니엘서 - 제61번

예언의 태피스트리의 베일을 걷기: 다니엘의 환상, 언약, 그리고 말세의 인침의 때를 이해하기

Jeff Pippenger  
2024-01-25

가브리엘은 9장에서 다니엘에게 8장에서 제시되었던 두 환상에 대한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 찾아왔다.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그것을 네게 알리러 왔나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이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라. 다니엘서 9:22, 23.

다니엘이 필요로 했던 "이해"를 얻기 위해, 가브리엘은 그에게 "사건"과 "이상" 둘 다를 이해하라고 말했다. "사건"은 성소와 군대가 짓밟히는 것에 관한 이상이었고, "이상"은 1844년 10월 22일의 나타남에 관한 이상이었다. 화이트 자매도 다니엘이 칠십 년 포로 기간과 이천삼백 년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리면서, 이 두 이상을 강조한다. 그 칠십 년은 가브리엘이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이고, "이상"은 이천삼백 년이었다. 가브리엘이 이천삼백 년의 해석을 제시할 때, 다니엘은 말세의 "지혜로운 자들"을 대표한다. "지혜로운 자들"은 가브리엘의 해석에서 "사건"과 "이상" 둘 다를 알아보지만, 악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밀러파는 "사건"과 "이상"을 이해했지만, 제한된 방식으로만 이해했다.

490년의 시험 기간은 레위기 25장과 26장에 제시된 '일곱 때'의 언약에 대항한 490년의 반역을 근거로 한 기간이었다. 70년의 포로 기간은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모든 해의 합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과 언약을 확증하신 그 한 이레는, 1,260일씩 두 기간으로 표현된 바와 같이, 그의 언약을 둘러싼 쟁투를 보여 주는 모형이었다. 그 예언적 한 이레는 하나님의 인을 예표하는 십자가에 의해 둘로 나뉘었다.

"그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히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천사들은 읽을 수 있으나 인간의 눈은 읽을 수 없는 표이다. 이는 멸하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주께서 양자로 삼으신 아들과 딸들 안에서 갈바리의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는 제거되었다.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었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신실하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21, 52.

그 한 주간은 538년의 일요일법(짐승의 표)을 경계로 둘로 나뉜 1,260년의 두 기간을 예표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먼저는 이교가, 그다음에는 교황주의가 성소와 군대를 유린하였다. 1,26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언하셨고, 이어 또 다른 1,260일 동안에는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같은 증언을 하셨다. 1,260년 동안 사탄은 이교를 통해 자신의 증언을 하였고, 이어 또 다른 1,260년 동안에는 교황권을 통해 자신의 증언을 하였다.

고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다툼"이 된 그 언약은 땅을 쉬게 하는 규정과 매 사십구 년마다 지키는 희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레위기 25장의 언약이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그 땅이 여호와께 안식을 지키리라. 여섯 해 동안 너는 네 밭에 씨를 뿌리고, 여섯 해 동안 네 포도원을 가지치고 그 열매를 거두어들이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는 안식, 곧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니, 너는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지치지도 말라. 네 추수 후에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의 포도도 모으지 말라. 이는 그 땅이 쉬는 해이니라. 그 땅의 안식으로 나는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에게도 그 소산이 모두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는 너를 위하여 해의 안식년 일곱, 곧 일곱 해를 일곱 번 계산하라. 그러면 해의 안식년 일곱의 기한이 너희에게 사십구 년이 되리라. 그런 다음 일곱째 달 열흘날, 곧 속죄일에, 너희는 희년의 나팔 소리를 너희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라. 너희는 그 오십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온 땅에 자유를 선포하라. 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될 것이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 오십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며, 그 해에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않은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기 때문이니,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하리라. 너희는 밭에서 나는 그 소산을 먹을지니라. 이 희년의 해에는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레위기 25:1-13.

이천삼백 년 예언의 첫 번째 기간은,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그 한 주간과 사백구십 년과 마찬가지로, 레위기 25장과 26장의 '일곱 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갈 때부터 메시아 곧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있으리라. 거리는 다시 세워지고 성벽도 그러하리니, 비록 고난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다니엘 9:2.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는 육십구 이레는 그리스도의 세례에 이르게 하며, 그가 언약을 확증하신 그 한 이레의 시작을 가리킨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다툼'이라 불리는 언약이었다. 그러나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라는 표현에 의해 육십구 이레와는 구분되는 '이레의 이레'(사십구 년)가 있었다. 기원전 457년부터 사십구 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레위기 25장의 언약과 희년 절기를 분명히 가리킨다. 그 사십구 년은 희년의 순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칠 주의 절기 사십구 일을 따른 오십째 날인 오순절을 상징하기도 했다.

이천삼백 년의 처음 사십구 년과 사백구십 년, 그리고 언약이 확증된 그 한 이레는 모두 레위기 26장에서 '일곱 때'로 표현된 이천오백이십 년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천삼백 년 예언의 모든 요소는 재림주의가 1863년에 제쳐 두고 거부한 '일곱 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일곱 때'는 희년 언약의 상징이며, 그러므로 1844년 10월 22일에 이천삼백 년이 끝났을 때 바로 그날 이천오백이십 년도 끝났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이는 모세가 레위기 25장에 기록했기 때문이다:

너는 너를 위해 안식년을 일곱, 곧 일곱 번의 일곱 해를 계산하라. 그러면 안식년 일곱의 기간이 너에게 사십구 년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일곱째 달 열흘, 곧 속죄일에 희년의 나팔 소리를 나게 하여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울리게 하라. 레위기 25:8, 9.

이천삼백 년 안에 속한 모든 예언적 기간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두 예언 기간이 끝난 그날도 포함된다. 처음 49년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완결될 예루살렘의 재건과 회복의 일을 가리켰다. 성전은 세 번째 칙령 이전에 완공되었고, 마찬가지로 밀러파 성전도 셋째 천사가 오기 전에 완공되었다. 그러나 기원전 457년 이후에도 '거리'는 여전히 다시 건축되어야 했고, '성벽'도 그러했으며, 그것은 '곤란한 때에도' 이루어져야 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시며, 1844년 10월 22일 이후 밀러파는 '거리'와 '성벽'을 '곤란한 때에' 마무리해야 했다.

화이트 자매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문자적인 보호의 성벽을 하나님의 율법의 상징으로 지목하고, 1844년 10월 22일 직후 신실한 자들이 하늘 성소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율법(그 성벽)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기 위해, 밀러파 신자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다시 인도되었다. 문자적인 "거리"의 회복은 밀러파 신자들이 예레미야의 "옛 길들"로 돌아갔을 때 영적으로 이루어진 회복이었다. 성벽과 거리가 세워지는 기간에 있게 될 "환난의 때"는 1844년 이후에 성취될 것이었고, 그때 다가오고 있었으며 곧바로 그 역사 속에서 시작된 남북전쟁이 바로 그 환난의 때를 대표하였다.

그들이 신실했더라면 희년의 상징적 제50년(노예들이 해방되는 때)에 이르렀을 것이며, 이는 또한 오순절의 제50일(해방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해지는 때)로도 상징되었다. 그러나 1844년 이후 대부분은 안식일의 빛을 반대했고, 1863년에는 엘리야(윌리엄 밀러)가 그들에게 전해 준 모세의 메시지("일곱 때")도 거절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이 회복하고 그 길로 걸어야 했던 '거리'(옛 길)에서 돌아섰다.

예수님은 시작을 통해 끝을 보여 주시며, 마지막 때에 열 처녀의 비유가 다시 반복될 때에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이 다시 성취될 것이다. "거리와 성벽"은 "환난의 때"에 재건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환난의 때로 들어가고 있다. 1844년 10월 22일은 머지않아 시행될 일요일 법령을 예표하므로,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시각"이 이를 때 거리와 성벽은 환난의 때에 세워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환난의 때를, 이슬람의 전쟁이 격화됨으로 인해 빚어진 "열방의 분노"로 규정할 것이다.

"환난의 때"에 관해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설명을 덧붙였는데, 그 설명은 Early Writings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

1. 33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과 불신자들을 가르치는 장벽이 된다는 것을 보았다. 또 안식일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큰 쟁점이라는 것도 보았다. 나는 하나님께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자녀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빛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가 시작될 때, 우리가 나아가 안식일을 더 온전히 선포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 견해는 1847년에 주어졌는데, 그때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형제들이 극히 적었고, 그들 중에서도 그 준수가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 사이에 경계를 그을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이제 그 견해의 성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그 환난의 때의 시작'은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앙들이 쏟아지기 직전의 짧은 기간, 곧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계시는 동안을 가리킨다. 그때, 구원의 사업이 마감되어 가는 동안, 땅에는 환난이 임하고 열국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억제될 것이다. 그때 '늦은 비', 곧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이 임하여, 셋째 천사의 큰 소리에 능력을 더해 주고, 일곱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기간에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예비할 것이다. Early Writings, 85.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짧은 기간"이 있으며, 그때에는 "열방이 분노하되 억제될" 것이다. 동시에 "늦은 비"가 임한다. "열방의 분노"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확인되는 상징이다.

민족들이 분노하였고 주의 진노가 임하였으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이르렀고, 주의 종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작은 자와 큰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실 때가 되었나이다. 요한계시록 11:18.

화이트 자매는 이 절에 대해 논평한다.

나는 열방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죽은 자들을 심판할 때가 서로 구별되어 차례로 이어지며, 또한 미가엘이 아직 일어서지 않았고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이제 열방이 분노하고 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시면 일어나 보복의 옷을 입으실 것이며, 그때 마지막 일곱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나는 네 천사가 성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칠 때까지 네 바람을 붙들고 있을 것이며, 그 후에 마지막 일곱 재앙이 임할 것을 보았다." 초기 문집, 36쪽.

'열방의 분노'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일어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일어나며, '죽은 자들을 심판할 때'는 천년기 동안 일어나는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1844년에 시작된 죽은 자들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었다. 그는 그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자를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고 그곳을 잠그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후에는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하리라.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었고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었으며,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하고, 짐승이나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의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은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렸다. 요한계시록 20:1-4.

성도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천년기 동안 악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임을 가리킨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의 천 년 동안에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을 주의 재림 뒤에 일어날 사건으로 지적한다.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실 때에 어두움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고린도전서 4:5.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셨을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권이 주어졌다”고 선언한다. 다니엘 7:22. 이때 의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한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한다. “내가 보좌들을 보았고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었으며,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와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4, 6. 바울이 예언한 바와 같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일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다. 고린도전서 6:2.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악인을 심판하는데, 그들의 행위를 법전인 성경과 대조하여 몸으로 행한 바에 따라 각 사건을 판결한다. 그 후 악인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될 형벌의 분량이 정하여지고, 그 내용이 그들의 이름을 대하여 사망의 책에 기록된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바울은 말한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 또 유다는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가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 아래 영원한 사슬에 묶어 두셨다'고 선언한다. 유다 6절.

천년기의 끝에 둘째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악인들이 부활하여 '기록된 심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자는 의인들의 부활을 묘사한 뒤 이렇게 말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 년이 마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요한계시록 20:5. 또 이사야는 악인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구덩이에 죄수들을 모으듯 함께 모여 감옥에 가두어질 것이며, 여러 날 후에 벌을 받으리라.' 이사야 24:22. The Great Controversy, 660, 661.

그러므로 '열방이 분노함'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세상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가리키며, '열방이 분노할' 때 그들은 동시에 '견제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민족들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때가 서로 별개이고 뚜렷이 구별되며, 차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았다." Early Writings, 36.

“열방이 분노할 때”에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때, 구원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동안, 지상에는 환난이 임하고 열방이 분노하되, 그 분노는 셋째 천사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억제될 것이다. 그때 '늦은 비', 곧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이 임하여, 셋째 천사의 큰 음성에 능력을 더해 주고, 마지막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 때에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초기 저술, 85쪽.

“열방이 분노하는” 때가 있지만, 그들은 동시에 “제지된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는 그분이 늦은 비의 때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이다.

“늦은 비는 순결한 자들에게 임하고 있다—그때에는 모두가 이전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것을 받을 것이다.”

“네 명의 천사들이 놓아버릴 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늦은 비를 받지 못한다.” Spalding and Magan, 3.

초기 저술의 앞선 두 단락은 민족들이 분노하면서 동시에 ‘제지’될 때,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불든다고 밝힌다. 그러므로 민족들의 분노는 ‘네 바람’으로 상징된다. 그녀는 또한 네 천사가 분노한 민족들을 제지하고 있을 때 늦은 비가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늦은 비가 임할 때, 곧 민족들이 분노하되 제지되고 있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기간은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간의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그 기간은 구원의 문이 닫혀 가는 때이며, 그러므로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을 가리킨다. 그때는 그분께서 심판의 책에서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시거나 그들의 이름을 지우시는 때로 규정된다. 천사들이 네 바람을 불든고 있는 그 기간이 바로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때이다.

셋째 화의 이슬람은 ‘열방을 진노하게 하는’ 권세이며, 셋째 화는 2001년 9월 11일에 도래했으나 이슬람은 즉시 ‘제지되었다’. ‘동풍’은 이슬람을 상징하며, 이사야는 ‘동풍’을 하나님이 ‘제지하신다’(억제하신다)고 하는 ‘거친 바람’으로 규정한다. 이슬람의 전쟁은 해산하는 여인으로 거듭 묘사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능한 천사가 강림한 때, 곧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진 사건으로 표시된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점차 격화되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뉴욕이 해일에 휩쓸려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는 말이 나오는가? 이것은 내가 결코 말한 바가 아니다. 나는 그곳에 층층이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거대한 건물들을 바라보며, ‘주께서 일어나사 땅을 크게 진동시키실 때에 얼마나 무서운 장면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때에 계시록 18:1-3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시록 제18장 전체는 이 땅에 임할 일을 경고하는 말씀이다. 그러나 뉴욕에 닥쳐올 일에 관하여 나는 특별한 빛을 받은 바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돌이키고 뒤엎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그곳의 큰 건물들이 무너져 내릴 것임을 알 뿐이다. 내게 주어진 빛으로 나는 세상에 멸망이 있음을 안다. 주의 한 말씀, 그분의 강하신 능력의 한 번의 손길이면,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906년 7월 5일.

1843년과 1850년의 도표에서 이슬람은 ‘군마’로 상징된다. 첫째와 둘째 화와 관련된 이슬람이 제시된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슬람의 성격은 이슬람의 왕의 이름으로 드러난다.

그들 위에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무저갱의 천사였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다. 요한계시록 9:11.

그 구절, 즉 9장 11절은 예언적으로 구약(히브리어)에서든 신약(그리스어)에서든 이슬람의 정체가 아바돈 또는 아폴리온이라고 지목한다. 두 이름은 모두 ‘파괴와 죽음’을 의미한다.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은 굴레를 벗어나 온 지면을 가로질러 돌진하려 하며, 지나가는 자취마다 파괴와 죽음을 싣고 가는 성난 말로 묘사된다."  
Manuscript Releases, 제20권, 217쪽.

네 바람은 성경 예언의 성난 말로서, 풀려나려 하고 있다. 그 성난 말의 예언적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억제되어 있지만 풀려나 온 땅에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려 한다는 것이다.

다음 기사에서 이 주제들을 계속 다루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거의 우상숭배에 내어주어진 수천 개의 도시들에 임박한 멸망을 자각하기만 한다면! 그러나 진리를 선포해야 할 많은 이들이 형제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 회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에 임할 때,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비판하고 허물어뜨리려는 성향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빛이 세상에 비치는 것을 가로막는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비난과 정죄는 그칠 것이다. 원수의 세력들이 전투를 위해 집결하고 있다. 치열한 투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형제자매들이여, 서로 굳게 뭉치라, 굳게 뭉치라.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하라. '너희는 "동맹"이라 말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리하면 그는 너희에게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 모두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울무와 덧이 되시리라.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부서지며, 울무에 걸리고, 사로잡히리라.'

세상은 하나의 극장이다. 그 배우들, 곧 그 거민들은 마지막 위대한 드라마에서 자기 몫을 연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람들의 시야에서 하나님은 사라졌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탁할 때를 제외하고는, 인류 대중 가운데 일치이 없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반역한 백성들에 관하여 그분이 가지신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혼란과 무질서의 요소들이 한동안 권세를 잡도록 허용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사람들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다. 아래로부터 오는 한 권세가 드라마의 마지막 위대한 장면들을 일으키기 위해 일하고 있다—사탄이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오며, 비밀 결사로 서로 결속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역사하는 것이다. 결탁하려는 열망에 굴복하는 자들은 원수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원인 뒤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다.

죄악은 거의 그 한계에 이르렀다. 혼란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머지않아 큰 공포가 인류에게 닥칠 것이다. 종말이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곧 세상에 엄청난 놀라움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야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3년 9월 10일.